▌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1호 [2012. 6] : 57～80

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의 역사와 현황

- 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

노 용 석**
(Noh, Yong-Seok)

〈Abstract〉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n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This year(201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alvinas (Falkland) war. A series of talks between the British and Argentina took place over 30 years until 1982, but failed to reach a conclusion on sovereignty. Argentina claims that sovereignty of the islands was transferred to Argentina from Spain upon independence, a principle known as *uti possidetis juris*. But UK claims that the principle of *uti possidetis juris* is not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al of international law, and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calling for negotiations are flawed because they make no reference to the islanders' right to choose their own future. In this situation, a huge amount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has discovered near the Malvinas islands. To explore such situation, this article looks into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n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anth99@hanmail.net

and also analyses de-colonialism and resource nationalism related to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Key Words: Malvinas(Falkland)/ Dispute of Sovereignty/ De-Colonialism/ Resource Nationalism]
[주제어: 말비나스(포클랜드)/ 영유권 분쟁, 탈식민주의/ 자원민족주의]

1. 들어가며

2012년 3월 27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98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르헨티나의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Adolfo Pérez Esquivel)은 "영국이 말비나스(Islas Malvinas) 섬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에스키벨은 과테말라의 리고베르타 멘추(1992년 노벨평화상 수상),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197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1984년), 미국의 조디 윌리엄스(1997년), 이란의 시림 에바디(2003년)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6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소개했다. 이들은 모두 말비나스 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1)]

또한 2012년 4월 15일 콜롬비아의 까르따헤나에서 개최된 제6차 미주기구(OAS) 정상회의(미주정상회의)에서는 마약 퇴치 협력과 미국의 쿠바

1)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앞으로 보내는 이 서한에서, 이들은 "영국 정부가 대화 거부 자세를 재고하기 바란다"면서 말비나스 영유권 논란과 관련해 양국에 협상을 촉구한 유엔 결의안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봉쇄 해제, 말비나스 섬을 둘러싼 영국-아르헨티나 간의 갈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여기서 미주정상회의 회원국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말비나스 문제에 있어서 아르헨티나에게 지지를 보냈으며, 영국의 성의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에 반해 현재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영국은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는(2012년 2월 2일) 영국 왕실의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를 말비나스에 직접 파견하거나 인근 해안에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의 다소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최근 행보는 아르헨티나를 자극하여,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HSBC 등의 영국계 금융회사가 군중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말비나스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공방은 아이러니하게도 '말비나스 전쟁' 발발 30주년인 2012년을 맞이하여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전통적인 '영유권'이라는 단일 주제를 벗어나 좀 더 확대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해양자원'과 '식민주의' 논쟁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양자원의 문제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여타 국가에서 인지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말비나스 전쟁 3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영유권 문제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고,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말비나스 분쟁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최근 정책이 탈식민주의와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말비나스 문제가 예전과는 달리 아르헨티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지가 범라틴아메리카적 탈식민주의 및 자원민족주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2. 말비나스 분쟁 일지

1) 초기 영유권 분쟁 과정

말비나스 제도는 남서대서양에 위치한 12,713㎢ 면적의 섬들을 말하며, 그란 말비나스 섬(Isla Gran Malvina), 솔레닫 섬(Isla Soledad) 등 약 7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척박한 기후의 땅으로 아르헨티나 본토로부터 480 내지 700km 떨어져 있다. 외형적으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있으며 수도는 스탠리(Stanly)이다. 현재 약 3,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약 98%의 주민이 영국계로써 영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말비나스 제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이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말비나스 제도에는 1690년 영국의 존 스트롱이 처음으로 상륙하고, 1764년 프랑스의 루이 앙트완 드 부갠빌이 최초의 정착민을 이주시켰다. 이후 1766년에는 프랑스 정착촌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 영국 정착촌이 세워졌고, 이로 인해 1711년에는 프랑스 정착촌의 권리를 넘겨받은 스페인과[2] 영국이 전쟁의 위기로 몰리기까지

2) 1766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프랑스가 말비나스의 세인트 루이스 항구(Port Saint Louis)에 대한 권리를 스페인에게 양도하고, 스페인이 프랑스가 정착촌을 개척할 당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약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프랑스는 말비나스 제도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으며, 스페인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였다.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은 각기 1776년과 1811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말비나스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말비나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였다.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아르헨티나는 'uti possidetis juris'[3]에 의거해 주변의 스페인 땅은 모두 자신들의 땅이라며 말비나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831년,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인근에서 조업하던 미국 포경선을 나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말비나스의 정착촌이 미해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말비나스 정착촌을 파괴한 후, 말비나스가 누구의 영토도 아님을 선포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당시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의 '본능'을 새롭게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1833년 당시 가장 막강한 제국주의 세력이었던 영국은 말비나스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동 제도를 식민지화함으로서 본격적인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은 현재까지 일부 시기(1982년 아르헨티나의 군사행동 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말비나스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했다.

말비나스 문제는 1960년대 들어 새로운 차원의 영유권 분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64년 '유엔 탈식민지 위원회'는 말비나스의 지리적 위치를 문제 삼으며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1965년 12월 16일, 유엔은 '모든 지역에서의 식민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희망'과 더불어 '말비나스(포클랜드) 제도 주민들의 이익에 의거해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거주지들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결의안 2065'호를 의결하였다.[4] 이후 1966년 양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최초로 영

3) 식민지 시대 국경 혹은 행정경계선을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현재의 소유권 인정 원칙'을 말한다. 특히 이 원칙은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들이 독립할 때 적용되었던 것이었다(김대순 2007, 788).

4) "A/RES/2065(XX). The Question of the Falkland Islands(Malvinas)". http://www.un.org/depts/dhl/resguide/r20.htm(2012. 5. 12).

유권에 대한 회담을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고, 1973년 아르헨티나는 다시 유엔에 말비나스 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5)]

이 시기 아르헨티나가 주장한 주요 내용들은 말비나스 제도가 자국 영토인 것에 대한 당위성들이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1493년 로마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칙서와 1494년 또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 등을 통해 볼 때[6)], 현 말비나스 제도의 영토는 스페인령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1816년 독립 이후 스페인령에 대한 모든 영토를 아르헨티나가 승계했으므로, 현재 말비나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도 말비나스 제도는 아르헨티나가 위치한 남아메리카에 근접해 있으므로, 당연히 이 영토에 대한 권한은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영국의 말비나스 점거는 일종의 식민지배로 인식되었고, 말비나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은 식민 상황에 대한 종식을 의미하였다.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공식적 입장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인 영국은 말비나스 제도

---

5) 영국의 데일리 신문은 아르헨티나 일간지인 '라 나시온'을 인용해 영국 외무부의 비밀문서와 외교관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1974년 6월 11일 영국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에게 말비나스(포클랜드) 섬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으며,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20여 일 후 페론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2. 3. 14).

6) 교황 알렉산데로 6세는 스페인 출신으로써 1492년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1493년 5월 4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분쟁과 관련한 '칙서'(Inter Caetera)를 발표하였다. 칙서의 세부적 내용은 아조레스 군도와 까보 베르데에서 서쪽으로 100레구아 떨어진 곳에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의 동쪽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이 모든 권리와 사법권을 인정받고, 서쪽에 대해서는 스페인 국왕이 모든 권리와 사법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칙서에 대해 포르투갈의 국왕인 주앙 2세는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교황이 '칙서'에서 정한 경계선을 베르데 곳에서 서쪽으로 370레구아 옮겨 변경하였는데, 이를 또르데시야스 조약이라 한다. 위의 '칙서'와 또르데시야스 조약에 근거해 볼 때 말비나스 제도는 스페인령에 속하게 된다.

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만큼, 아르헨티나의 움직임에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2) '더러운 전쟁'(Dirty War)과 말비나스 전쟁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극도의 침묵정책을 유지해오던 영국은 1982년 자신들의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는 바로 말비나스 전쟁의 발발이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대는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말비나스와 인근 제도 3개 섬에 대한 탈환을 완료하였다. 이 행동은 곧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군사작전 이후 곧바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유엔 등에 '침공'을 격하게 항의하였으며, 4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아르헨티나 군이 즉각적으로 말비나스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결의안(502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쟁을 결정한 아르헨티나 군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아르헨티나 군부의 입장에서 말비나스 전쟁이 영유권 분쟁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요 산업국의 지위를 획득하며 승승장구하던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이후부터 불황과 실업,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국력이 쇠약해져 갔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연쇄적으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급기야 1976년에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강압적인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1976년 3월, 호르헤 비델라 장군(General Jorge Videla)을 위시한 아르헨티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아르헨티나 군사통치위원회(Junta Militar)는 이사벨 페론(Isabel Perón)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른바 '국가 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철권통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일명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 일컫는

다. ‘더러운 전쟁’ 기간인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의 철권통치에 의해 약 10,000명 이상의 실종자(desaparecidos)[7]와 수 천 명의 국외 망명자가 발생하였다(Shelton, Dinah L. 2005, 65). 이 당시 발생한 희생자와 실종자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 식 생활양식’을 지키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노조원, 학생운동 가담자, 언론인 등이었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다.

군부의 강압 정치는 수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실종자 문제 해결 및 민주화를 요구하며 ‘오월광장 어머니회’(Mothers of the Plaza de Mayo)와 같은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3월 18일, ‘오월광장 어머니회’는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철야기도회를 실시하였고, 3월 30일에는 수 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 연대’(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 소속의 노동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결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실 아르헨티나 군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아킬레스건은 쿠데타의 정당성과 자국의 민주화였다. 지속적인 민주화 및 실종자 문제 해결 요구는 군부의 상황을 고립시켰다. 이렇듯 아르헨티나 민중으로부터 군부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시기에 말비나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말비나스 전쟁이 시작된 1982년 4월 2일은 노동자 연대의 시위가 발생한 3일 후이다.

전쟁의 결정은 전격적이었지만, 계획은 이미 수 년 전에 수립되어 있

---

7) 군부독재가 물러난 이후 집권한 민선 알폰신(Raúl Alfonsín) 대통령은 1984년 실종자 및 군사독재정권의 범죄행위를 청산하기 위하여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CONADEP) 설립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펼친 후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국가범죄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것이 ‘눈까마스’(Nunca Más ; never again)이다. ‘눈까 마스’에서는 실종자의 수를 약 8,960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실종자의 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는 실종자의 수가 약 30,000 명에 이를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었다. 1981년 호르헤 아나야(Jorje Anaya) 장군에 의해 계획된 말비나스 '탈환' 계획은 갈띠에리(Leopoldo Galtieri) 군사독재가 국내에서 수세에 몰리자 실행되었다(Bouvard 1994, 120). 전쟁이 시작되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군부의 바램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군부독재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는 말비나스 공격을 지지하는 행사로 교체되었고, 노동운동도 자신들의 불만을 잠시 거둔 채 전쟁의 향방에 관심을 두었다(Kohut 외 2010, 156)[8]. 하지만 아르헨티나 군부의 몇 가지 커다란 착각은 전쟁을 미궁상태로 몰고 갔으며, 결국 6월 14일 벤하민 메넨데스(Benjamin Menéndez) 장군이 영국에 '조건 없는 정전과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군부의 가장 큰 착각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이 자신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과 말비나스에 대한 영국의 대응이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깨졌는데,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영국을 적극 지지하였고, 영국의 대처 수상은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아르헨티나와 맞섰다.

분석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 군이 무력으로 말비나스를 점령한 것은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에 의한 내부 문제를 외부로 분산하려는 고전적인 정치 수단의 일환이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 정치 혼란, 실종자 문제 등에 대한 국내 비판을, 전쟁을 통한 '애국주의'로 교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애국주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쟁의 기획자였던 군부독재가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은 내부의 위기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다가 거꾸로 패착이 되어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 아르헨티나는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말비나스 전쟁의 본질이 군

8) 말비나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아르헨티나의 많은 반군사독재 투쟁이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운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되었다.

사독재를 연장하고 국내정치 불만을 희석하는데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쟁의 '불순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말비나스에 대한 주권 의지를 가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전쟁이 발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이어지고 있다.

3) 자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말비나스 전쟁 이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국교는 1990년이 되어서야 재개되었다. 1989년 알폰신에 이어 평화적 수평 정권교체로 대통령에 당선된 메넴(Carlos Saúl Menem)은 외무부장관인 디떼야(Guido Di Tella)를 통해 영국과의 국교 재개 협상을 시작하였고, 1990년 마침내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집권 이후 메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 하에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메넴 정부는 말비나스 제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조를 적용하여, 제도 인근에서의 어업권과 같은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영유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별개'로 처리하는, 'sovereignty umbrella'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90년 '어업 보존에 관한 공동성명'[9]과 1995년 '연안활동에 관한 공동선언'[10], 그리고 1996년 '공동유전지역 개발' 등을 잇달아 성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1990년 공동성명 제1조와 1995년 공동선언 제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위의 선언들

9) "Joint Statement issue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Argentina at Madrid on 15 February 1990"

10) "Joint Declaration of 27 September 1995 Cooperation over Offshore Activities in the South West Atlantic". 이 합의는 말비나스(말비나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의 원유 등 자원탐사에 대한 영국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말비나스(포클랜드)의 영유권에 대한 양국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양국의 어떠한 행위도 양국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최재선 외 2009, 152-153). 1994년 8월 22일, 아르헨티나 의회는 주권확인 조항을 새롭게 수정하면서, 말비나스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Georgias del Sur) 및 사우스 샌드위치(Sandwich del Sur)제도가 아르헨티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11] 이에 대해 영국은 1994년 말비나스(포클랜드) 제도 인근 해역에서의 어로 한계선을 확대 발표하고, 1997년 1월에는 이 해역에서의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공방 속에서, 양국의 상황은 1995년 영국의 어로수역 확대가 발표될 때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남대서양해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거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실제적인 주권 및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메넴 정부의 경제우선 정책에 의거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렇듯 자원과 영유권 이슈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던 말비나스 문제는 2003년 들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한다. 2003년, 새로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된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는 전임 정권과는 다른 말비나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키르츠네르 정부는 말비나스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국가 자존심 회복의 단초로 보면서, 강력한 영유권 회복 드라이브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키르츠네르 정부는 2007년 3월 27일, 1995년 영국과 합의한 남대서양해 원유와 천연가스 공동개발 합의(연안활동에 관한 협력 선언)를 파기한다고 아르헨티나 주재 영국 대사에게 통보하였다. 이것은 아르헨

11) "Constitución Nacional". http://www.senado.gov.ar/web/interes/constitucion/cuerpo1.php. (2012. 5. 13).

티나가 취한 일방적 합의 파기로서, 이러한 움직임의 원동력은 이미 2003년 정권교체 이후부터 외형화 되기 시작하였다. 키르츠네르 정부는 2003년부터 칠레와 말비나스의 수도 스탠리를 연결하는 비행노선의 취항을 통제했으며, 2005년부터는 영국 정부에 말비나스 수역 어업제도 변경에 대해 지속적인 항의를 취해왔다.[12] 또한 아르헨티나 하원은 2006년 6월, 말비나스 문제를 좀 더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원의원 7명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말비나스 의회 전망대'(Parliamentary Observatory on Malvinas Islands)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메넴 정부와는 달리 말비나스 제도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키르츠네르 정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절정이 2007년 실행된 영국과의 합력 선언 파기라 할 수 있다.[13]

하지만 키르츠네르 정부의 위와 같은 움직임이 단순히 '애국심'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2006년 스페인을 방문한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말비나스 제도 인근 남대서양에 스페인 석유회사 'Repsol-YPF'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왜냐하면 말비나스 제도 인근 남대서양해는 상당한 양의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말비나스 제도 인근은 스페인 이외에도, 브라질의 석유회사인 Petrobras와 베네수엘라의 PDVSA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다.[14] 이와 같은 상

12) 말비나스 당국은 2006년부터 말비나스(포클랜드) 연안 어업 허가기간을 1년 단위에서 25년으로 변경하였다.

13) 하지만 당시 아르헨티나 야당은 키르츠네르 정부가 실시한 영국과의 협력 파기를 '애국주의'에 편승해 2007년 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여당의 음모라고 비판하였다. 2007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의 후보인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가 44.92%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크리스티나는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53%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14) 말비나스 제도 인근의 남대서양은 상당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으

황에서 아르헨티나가 관심 기업들과 투자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1995년 영국과의 협력 선언을 폐기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영원히 확보해야만 했다. '말비나스 의회 전망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비나스 영유권 회복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통일된 정치, 사회, 문화적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15]. 이렇듯 키르츠네르 정부의 말비나스 정책은 메넴 정부와는 달리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의 세부적인 측면은 자원 및 경제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2009년부터 말비나스 인근의 자원과 관련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국은 2009년 초 말비나스 제도 인근에 약 180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영국은 아르헨티나와의 영유권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16] 결국 2009년 4월 22일, 아르헨티나는 매장 자원 문제와 연관하여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에 말비나스 제도 및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말비나스 제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코자 하는 아르헨티나의 강한 의지를 보게 하는 대목이다. 영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불과 한 달 후인 5월 11일 아르헨티나가 지목한 동일한 지역의 해저 120만㎢에 대해 영유권을 신청하는 문서를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영국의 문서 제출 소식이 확인

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기업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15) "Merco press". 2006년 6월 27일자. http://en.mercopress.com/2006/06/27/. (2012.04.30).

16) 2009년 3월 28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와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이 칠레에서 만났을 때, 브라운 총리는 크리스티나에게 '말비나스(포클랜드)의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The Times". 2009년 3월 28일자. http://timesonline.co.uk/tol/news/politics/article5991995. (2012.04.15).

되자 아르헨티나는 즉각 반발하였으며, 호르헤 타이아나(Jorje Tiana) 외무장관은 영국이 말비나스 제도 인근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논평하였다.[17] 이후 2009년 12월,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제도를 주권이 미치는 최남단 주로 확인한 법률 제26,552조를 공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입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즉 아르헨티나의 공세에 대해 반발은 있었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만큼 커다란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드러난 영국의 태도는 그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2010년 2월부터 영국의 석유회사가 말비나스 제도 일대를 대상으로 석유탐사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영국의 모습이었으며, 아르헨티나를 좀 더 자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2010년 6월, 말비나스 제도 문제를 유엔의 탈식민지위원회[18](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 C-24)에 회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르헨티나가 '식민지'라는 색다른 개념으로 말비나스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며, 또한 외교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유엔의 권고 사항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물론 탈식민지위원회 회부 이전에도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문제를 식민지와 연관시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9월 16일, 영국 석유회사 록호퍼는 말비나스 제도 북부지역에서 유전을 발견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20억 달러를 투자해 본격적인 시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9] 또한 2012년 4월 23일에는 영국의 석유회사인 보더스&서던 페트롤리엄 PLC가 말비나스 해역에서 가스층을

17) "중앙일보". 2009년 5월 13일 자.
18) 유엔 탈식민지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 1514호에 의거해 1961년 창설되었다.
19) "연합뉴스". 2011년 9월 17일 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2012.05.02).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구체적인 매장량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당량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제 말비나스 문제는 본격적인 자원 분쟁 문제로도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영국 정부가 말비나스 제도 인근 사우스 조지아 섬 주변 해역에 '해양보호수역'을 설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수역은 사우스 조지아 섬 주변 10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메로, 펭귄,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범고래, 바다표범의 천연서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20]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위와 같은 영국의 조치가 정말 멸종해가고 있는 '펭귄' 및 '바다사자'를 위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해양보호수역 설정에 대해 아르헨티나 하원 외무위원회의 루뻬르또 고도이(Ruperto Godoy)는 '사우스 조지아 섬은 아르헨티나의 완전한 영토이므로, 영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여 모든 섬들을 아르헨티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3. 탈식민주의와 자원민족주의

말비나스 제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영국-아르헨티나 간의 공방은 흡사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말비나스 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유권 분쟁은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

20)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함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서명국에 가입한 상태이다.

21) "원양산업뉴스". 2012년 1월 2일 자. http://www.ofis.or.kr/rb/?c=Information/news&cat. (2012.05.02).

며, 모두 18세기 이후 견고화 된 근대국민국가 체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는 근대국민국가(nation-state) 체제로 정비된 이후 빠르게 각 국가의 정체성 및 영토적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즉 '국민(민족)성'을 강조하여 하나의 국가를 상징화 함과 동시에, 이의 물적 기반인 영토에 대해서도 재빠른 정비를 시도한 것이다.

말비나스 문제를 영토 보전의 측면과 더불어 탈식민주의로 상정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끈질긴 주장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지정학적 위치 및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말비나스 문제를 명확히 19세기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지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논쟁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상당히 독특한 사례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19세기 초반까지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이후 발생한 독립전쟁에서는 광범위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통합 독립구역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물론 독립과정에서 행위 주체의 소수성과 제국주의의 권력구도가 작용하긴 했지만,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피식민지배와 이의 극복이라는 어느 정도의 일체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탈식민주의'(de-colonialism)의 가치와 연관된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라틴아메리카 독립 이후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스페인-포르투갈의 정신을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또한 끄리오요와 같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의 정치경제에서 '주변부'로 낙인찍혀 있던 라틴아메리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탈식민주의를 통한 변화 방향이 '라틴성'을 강화하거나 세계 체제를 벗어나 독자적 영역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아르헨티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탈식민주의의 비슷한 사례로서,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

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A)는 탈식민주의와 비동맹 체제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29개국은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민족자결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위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존중,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모든 나라의 평등 인정, 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국토방위권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압력 불행사, 무력행사 금지,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 촉진, 정의와 국제의무 존중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이전 식민지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근대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반둥회의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19세기 전반에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탈식민주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김은중 2009, 131). 하지만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반둥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논제들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사고가 'uti possidetis juris'라는 영토 보전에 대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에 대한 영토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반둥회의의 상황과 라틴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데는 조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둥회의 참석국의 대부분이 외형적인 정치형태로서 '비동맹 체제' 혹은 '제3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향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탈식민주의를 견지하였지만 궁극적 국가의 상은 사뭇 다른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는 스스로를 미국과 비슷한 국가라고 생각했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말 유럽 이민의 물결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이

이웃의 원주민이나 흑인으로 구성된 나라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의 확장은 결국 아르헨티나 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22]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즉, 백인만이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남미 전체에 개발의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Smith 2000, 132-134). 초기 아르헨티나의 탈식민은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방침이었지, 자신들의 처지를 '주변부'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르헨티나의 발전된 경제력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870년대부터 1930년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 내부에 탄탄한 중산층 및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어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Vanden 2009, 398). 1920년대 후반 이미 세계 7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했던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의 처지가 이웃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명백히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변 타국가와 분리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듯 독립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사조는 강렬한 '미국 혹은 유럽 지향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사조는 자국의 경제가 쇠퇴기에 접어든 1970년대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탈식민을 바라지만 전통적인 자신들의 가치는 오히려 식민지배 국가의 이상을 지지하는 듯한, 탈식민을 바라보는 아르헨티나의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었다. 이렇듯 탈식민에 있어서 상반된 아르헨티나의 정책은 냉전(cold war)과

22) 19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유행한 사조로서, 미국이 북미 전역의 정치, 사회, 경제를 지배하고 발전시킬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허버트 스펜스 등의 '백인의 짐'(whitemen's burden) 등의 개념과 더불어 서구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하고 강탈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다.

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수많은 군사쿠데타와 독재정권의 상흔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의 CIA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밝혀진 '콘도르 작전'(Operacion Condor)은 라틴아메리카 내 공산주의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실종되고 학살된 사건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대공산주의 정책에 기반한 아르헨티나의 독재권력 구조는 무작정 '탈식민'을 외치며 독립적인 국가 구조를 이루기에는 취약한 구조였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1964년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말비나스 문제를 제소하면서 1960년 유엔의 '식민지독립부여선언'을 강력히 주장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처지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식민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자신들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말비나스 전쟁은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사고에 상당한 전환점을 제공한 사건이었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영토회복에 대한 집념이었기보다는 '제1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내부문제의 희석'이었다. 1982년 4월 말비나스 전쟁이 시작될 무렵, 아르헨티나의 깔띠에리 정부는 개전 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침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동일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칠레로부터도 아르헨티나는 '탈환의 정당성'을 외면당해야만 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동일한 백인국가'라고 자부하던 서구세계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식민지 독립을 쟁취하였던 이웃 국가 모두에게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식민과 탈식민, 중심부와 주변부로 인식되는 이원론적 대립에서 아르헨티나의 위치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였고, 결국 자신들의 위치가 한낱 '주변부'에 지나

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위치를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데 말비나스 전쟁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말비나스와 연관된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바로 변화된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아르헨티나 정책이 탈식민주의를 국가영토(말비나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강조하였다면, 현재의 입장은 대륙적 연대를 통한 새로운 탈식민주의의 완성을 말한다. 즉 적극적으로 라틴아메리카라는 공동체로 들어가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남미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미주기구(OAS) 등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말비나스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이 설정했던 영토적 측면과 국가이상적 측면에서의 다소 상이한 탈식민주의 입장이 아니다. 현재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말비나스 인근에서 영국 선박의 항해나 시추 탐사 등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국 항구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범라틴아메리카'적 대응은 시몬 볼리바르 등에 의한 독립 투쟁과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Victor Haya de la Torre)의 아메리카혁명민중동맹(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 A.P.R.A) 결성 당시 제기되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다(Holden 2000, 128). 하지만 이러한 경향들은 현재 말비나스 영유권과 연관하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큰 동력을 얻고 있다.[23] 이처럼 말비나스 전쟁 이후 영유권 분쟁은 1980년

23) 예를 들어, 2010년 오바마 정부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던 외교에서 벗어나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평화적 협상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

대 이전까지 깨닫지 못하던 아르헨티나 내부의 '식민성'을 깨닫게 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탈식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아르헨티나의 변화된 양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아르헨티나 외교 정책의 수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냉전의 해체는 현재의 상황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자원민족주의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어온 냉전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제3세계로 편입하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이원론적 대립에 얽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독자적인 '범라틴연맹'을 발족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냉전의 해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탈피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자원민족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21세기 들어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가속을 붙였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로 대변되는 라틴아메리카발 '신좌파'의 자원 국유화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제국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치지형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말비나스 제도 인근의 자원민족주의는 단순한 '자원독점'의 문제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위에서 서술한 탈식민주의의 가치와 변화한 새로운 범라틴아메리카적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시리아, 모로코, 앙골라, 모잠비크와 같은 국가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4. 소결 및 향후과제

말비나스 제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은 단순히 토지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들은 역사적인 부분을 고찰했을 때 상당히 다양한 분석을 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변화한 탈식민주의 정책과 범라틴아메리카 운동, 그리고 이와 연관된 자원민족주의 문제들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반둥회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조류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까지 진행된 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의 역사와 현황 과제를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했던 말비나스와 연관된 탈식민주의 및 자원민족주의 등의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재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탈식민주의 주장에 맞서 '개방적이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소유, 점유, 행정'이 말비나스(포클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결원칙에 따라 말비나스(포클랜드)가 자국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말비나스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분쟁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말비나스 주민들의 대부분이 영국의 거주지 이전 정책으로 인해 유입된 이들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실제 거주민들보다는 국제사회의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실제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소 에믹(emic)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대순(2007),『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김은중(2009),「탈식민성과 라틴아메리카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pp.11-2.

박경일(2010),「한국의 해상강압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성훈(2003),「탈식민주의와 라틴아메리카니즘」. http://www.latin21.com/board3/view.php. (2012.03.27).

최재선 외(2009),『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Bouvard, Marguerite Guzmán(1994), *revolutionizing Motherhood :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Scholarly Resources Inc.

Holden, Robert H.(2000),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A Documentary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Kohut, D. and Vilella, O.(2010), *Historical Ditionary of the "Dirty Wars",* Toronto: The Scarecrow Press Inc.

Laurio H. Destéfani(1982), *The Malvinas, the South Georgias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the conflict with Britain, Buenos Aires.

Lewis, Paul H.(2002), *Guerrillas and generals : The "Dirty War" in Argentina,* Praeger Publisher.

Romero, Luis Alberto(1994), *A History of Argentina in the twentieth,*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Shelton, Dinah L.(2005), *Encyclopedia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omson Gale.

Smith, Peter H.(2000), *Talons of the Eagle: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이성형 외(2010), 『라틴 아메리카, 미국, 세계』, 서울, 까치글방.

Vanden, Harry E.(2009), *Politics of Latin America: The Power Ga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연합뉴스

Merco Press

The Times

중앙일보

원양산업뉴스

논문투고일자: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18일